



#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편지쓰기 캠페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가 인사드립니다. 공익제보자를 응원하기 위해 따뜻한 연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는 툇킷에는 신청하신 엽서와 배지(기념품), 우표가 붙어있는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아래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 ♡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1. 누구에게 편지를 보낼지 선택해 **응원편지** 또는 **청원편지**를 적어본다.
2. 글씨가 잘 보이도록 찍은 **인증사진**을 참여연대 휴대폰(010-4271-4251) 문자로 보낸다.
3. 엽서를 우표가 붙어있는 흰 봉투에 담아 **참여연대로 발송**한다.

주소지가 알려지길 원치 않는 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내주신 엽서를 모아서 참여연대 이름으로 발송합니다. 또한 인증사진은 캠페인 관련 소식을 알리는 데에만 쓰입니다.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활동해 온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모아 공익제보자 보호를 요구하는 물결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편지가 곧 청원서입니다.

## ♡ 편지 보낼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1. 공익제보자 **정미현** 선생님에게 응원 보내기
2. 공익제보자 **안종훈** 선생님에게 응원 보내기
3.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요구하기
4. 모든 공익제보자들에게 응원 메시지 적어 보내기

학생들을 위해 학교의 비리와 불법을 제보한 정미현, 안종훈 선생님을 응원해주세요. 응원편지 한 장 한 장이 제보자에게는 '나는 혼자다 아니다. 힘들지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구나'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를 요구하는 엽서를 보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공익제보자 보호와 사학비리 해결에 더 노력해달라고 요구해주세요.

## 정미현 선생님 이야기

### 누명 씌우며 보복하는 비리사학에 주민들과 함께 맞선 ‘용감한 선생님’

정미현 선생님은 동료 교사 4명과 함께 2017년 7월, 한홍학원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감사로 학교가 학교장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체들과 부당하게 거래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 학생들이 낸 수업료인 학교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고선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직원들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16가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20년간 일반고의 3배가 넘는 472만 원의 수업료를 받으며 폭리를 취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 가족관계 속에서 비리를 저지른 교장, 행정실장 등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고, 이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 이사장과 이사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요구, 부당 집행 예산 10억 7천 7백여만 원을 회수하는 처분 등을 요구했으나, 서울미술고는 전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서울미술고는 정 선생님을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어이없는 누명을 씌우며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것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직위해제와 두 차례의 파면 조치로 보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 선생님의 무혐의를 확인해 주었고 교원소청심사위에서도 복직을 명령했지만, 서울미술고는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 선생님을 비롯해 서울미술고 문제를 보도한 언론사들과 기자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학교에 나가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만큼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안전이 걱정돼 퇴근길에 매일 마중을 나옵니다. 그럼에도 정미현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관악지역 주민들,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서울미술고에 맞서 당당히 싸우고 있습니다.

## 1. 정미현 선생님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예) 선생님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서울미술고의 온갖 비리를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까지 나빠버리셨다고 들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선생님께 보복을 가하는 이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제자들의 미소를 마주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게요. 부디 건강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2.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요청해 주세요.

예)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님! 권익위원회가 사학비리를 제보한 선생님들을 법에 따라 보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미현 선생님은 서울미술고의 온갖 비리를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한 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파면도 모자라 누명을 쓰고 수업에서 배제당하며 온갖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질러 처벌받아야 할 이들이 더는 선생님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보호해주세요. 공익제보자들이 당당히 보호받고 부정부패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 안중훈 선생님 이야기

### 학교가 5번 쫓아내도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의로운 선생님'

"교실에서는 도덕과 정의를 가르치면서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몹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비슷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9. 5. 14, 안중훈 선생님의 칼럼 중에서)

안중훈 선생님은 2012년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학교는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직원 자격이 박탈된 행정실장에게 계속해서 불



법으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의 17건이 넘는 비리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 12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고 문제의 행정실장을 퇴직시키라고 학교 측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오히려 안 선생님을 탄압했습니다. 안 선생님은 2014년부터 학교로부터 두 번의 파면과 되풀이되는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만 해야 했습니다. 2017년 간신히 학교로 복귀했지만, 2018학년도가 끝나자마자 해임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6년 동안 다섯 번이나 강제로 교실 밖으로 내몰리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구학원 이사장 등으로부터 무려 8차례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해 없이는 불가능했을 오랜 투쟁에도 선생님은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정작 자신보다는 사학비리 해결과 공익제보자 보호에 걱정이 더 큼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학교와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익제보자들이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1. 안종훈 선생님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예) 선생님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동구마케팅고의 온갖 비리를 발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신 동기에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사학비리에 맞서 투쟁하시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시는 모습이 참 멋지십니다.

비리에 연루되고 선생님께 보복을 가하는 이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제자들의 미소를 마주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게요. 선생님~ 힘내세요!

## 2.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요청해 주세요.

예) 박은정 권익위원장님!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비리를 제보한 뒤, 동구학원으로부터 2014년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의 파면과 여덟 차례 고소 고발 등 온갖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결국 해임을 당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질러 처벌받아야 할 이들이 더는 선생님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보호해주세요. 공익제보자들이 당당히 보호받고 부정부패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 엽서 끝에는 동참의 의미로 서명을 함께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익명도 가능)

※ 참여연대로 15일 혹은 30일까지 보내주시면 자원활동가가 모여서 참여연대 이름으로 편지를 발송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